

주차도 출차도 스마트하게... 공영주차장 통합시스템 가동

서초구, 총 25곳 하나로 연결
현장 점검 이후 내달 중 운영
실시간 빈자리 확인·사전정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역내 공영주차장 25곳 약 2500 주차면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8월 중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2026년 6월 기준 서초구의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03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아 공영주차장 이용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12개 재조사의 서로 다른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주차장별 관리 방식이 달라

신속한 민원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개발과 현장 적용을 거쳐 25곳 공영주차장의 관제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다리지 않는 출차'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출차 게이트에서 별도 정산 없이 신속하게 출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비로 녹백길제, 카카오톡과 연계도 추진중으로 무정차 출차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인 '제비'로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8월 중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면 다둥이 가정과 65세 이상 서초구민 등 감면 대상자도 서초구 주차포털에서 사전 인증 완료 시 매번 다둥이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할 필요 없이 자동 주차요금 감면과 함께 무정차 출차가 가능해져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 주차면을 찾아 해매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통합시스템을 서초구 주차포털은 물론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TMAP과도 연계해 공영주차장별 잔여 주차면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주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차량 이동이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지역내 상점과 병원 등에서 방문 고객에게 간편하게 주차요금 환원을 제공하도록 돕는 '쉽 환원 서비스'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기자 zini@siminilbo.co.kr

드론 띄워 무인 항공방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신속 대응

경기도, 피해 수준별 맞춤 방제

경기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규모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방제 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방역작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수종전환과 드론 방제를 실시하고, 확산 방지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은 2022년 18개 시·군에서 올해 23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염목도 2025년 5만3351본에서

올해 9만9587본으로 증가했다.

전체 피해의 약 90%는 가평·양평·포천·남양주·광주 등 5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피해가 심각한 5개 시·군을 집중 방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목을 제거한 뒤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전환과 일정 구역의 감염목을 모두 제거하는 소구역 모두베기, 드론을 활용한 무인 항공방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피해목 밀도를 낮추고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유인·성남 등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11개 시·군에는 예방

나무주사와 감염목 제거 등을 병행하는 복합방제를 실시해 방어를 구축했다.

수인·과천·의왕 등 피해가 비교적 적은 7개 시·군에서는 감염목 전량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중심으로 방제해 청정지역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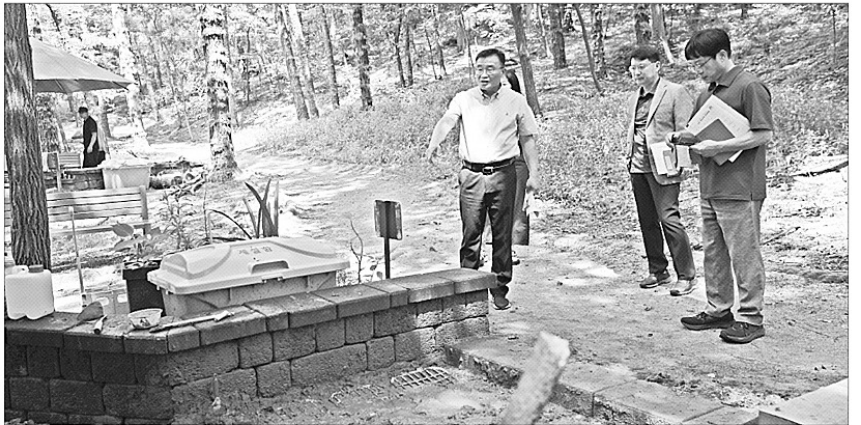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가평·양평·남양주·광주 지역 6km(600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무인 항공방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예방과 항공방제를 확대해 인력 중심 방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악지역의 재선충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

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하고 있는 라이다(LiDAR) 기반 자율주행 드론기술도 향후 재선충병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기술이 구축되면 드론 촬영 영상으로 감염 의심목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공간정보와 연계해 방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연구소는 앞으로 실험과 현장 적용성 검증을 거쳐 RNA 간섭 기술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민정환 기자 mjh@siminilbo.co.kr



숙지공원 맨발걷기길 현장 점검

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8일, 주민 이용이 많은 '숙지공원 맨발걷기길' 현장 점검이후 황토 상태와 배수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재 팔달구는 숙지공원을 포함한 총 5곳의 맨발걷기길을 조성했으며, 지난 6월 서호공원과 악수터어린이공원의 황토를 보충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사진은 황토를 구형정(완곡)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8일, 주민 이용이 많은 '숙지공원 맨발걷기길' 현장 점검이후 황토 상태와 배수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재 팔달구는 숙지공원을 포함한 총 5곳의 맨발걷기길을 조성했으며, 지난 6월 서호공원과 악수터어린이공원의 황토를 보충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사진은 황토를 구형정(완곡)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8일, 주민 이용이 많은 '숙지공원 맨발걷기길' 현장 점검이후 황토 상태와 배수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재 팔달구는 숙지공원을 포함한 총 5곳의 맨발걷기길을 조성했으며, 지난 6월 서호공원과 악수터어린이공원의 황토를 보충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사진은 황토를 구형정(완곡)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8일, 주민 이용이 많은 '숙지공원 맨발걷기길' 현장 점검이후 황토 상태와 배수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재 팔달구는 숙지공원을 포함한 총 5곳의 맨발걷기길을 조성했으며, 지난 6월 서호공원과 악수터어린이공원의 황토를 보충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사진은 황토를 구형정(완곡)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일 찜통더위... 폭염특보엔 도로 온도 낮춘다

구리시, 5.7km 구간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운영 확대

(김백로~갈매정영로)

경기 구리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갈매로부터 갈매중앙로까지 총 5.7km 구간에 설치된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자동청소시스템은 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처리한 재이용수

를 활용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중앙분리대 아래 설치된 분사구를 통해 도로에 물을 분사해 노면을 청소하고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도상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6월29일 폭염주의보

발효 이후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기온이 상승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하루 4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수도를 사용량을 줄이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물순환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구리=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마을버스 810-1번 초당高 앞 정차

용인시, 내달부터 노선 조정

경기 용인시는 오는 8월부터 기흥구 통배차수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810-1번 노선에 초당고등학교 앞 정류장을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을버스 810-1번은 810번, 810-2번 노선과 달리 초당고 앞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아 학생들이 버스를 내린 뒤 600m가량을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810-1번에도 초당고 앞 정류장에

정차하도록 노선을 조정했다.

시는 운행 경로의 변경 폭은 크지 않지만,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보행 부담을 줄이고 통학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일 시장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반영한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개선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작은 노선 조정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일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오형식 기자 ows@siminilbo.co.kr

홍대 일대 주차장 설치 여부 조사
마포구, 방문객·상인 의견 수렴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종필)는 홍대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 편의의 균형을 찾기 위해 여름마포로 41-1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노상주차장 설치 필요성과 우리 사랑을 증명하듯 검토하기 위해 상가 운영자, 건물 소유주, 거주민, 방문객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현장조사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장충동·황학동에 '클린하우스' 설치 생활폐기물 365일 24시간 배출 가능

서울 중구, 무단투기 집중 단속

서울 중구는 장충동과 황학동에 생활폐기물 거점형 종합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조성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곳에서 배출할 수 있다.

일부 주택가에서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골목 곳곳에 쓰레기를 내놓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무단투기와 방치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쓰레기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하는 '클린하우스'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설치 장소는 배출시간과 상관없이 쓰레기가 뒤섞여 쌓이면서 주민 민원이 잦았던 주택가 2곳을 우선 선정했다. 장충동 앞배서터호원 주차장 옆(종로로25길 5)에 종구1호, 황학동 뒷대개울배내치아 뒷골목(난계로23길 27)에 중구2호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lbo.co.kr

송파구, 11월까지 폐비닐 1kg→종량제봉투 교환

둘째·넷째 주 월~금요일 운영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11월까지 '폐비닐 직접보상제'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올해 3월 시작한 '폐비닐 직접보상제'에는 5개월 만에 1746명이 참여했으며, 이렇게 모인 폐비닐은 1만2032kg으로 12톤을 넘겼고, 주민에게 돌아간 종량제봉투는 1만2032장에 달한다.

폐비닐 직접보상제는 다시 쓸 수 있는 폐비닐을 주민이 직접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깨끗하게 씻어 말린 폐비

닐 1kg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봉투 한 장으로 교환해 준다.

대상은 공동주택을 뺀 일반주택 지역으로 종량제봉투 비뚤한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교환 받을 수 있다.

교환일은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 오후 1~3시다. 금요일은 오전에만 가능하다.

내년에는 주민 참여도와 종량제봉투 확보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동대문구 대표 휴양시설! 청풍명월의 자연이 어우러진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힐링 어떠세요?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 예약 방법
 - ① 개 인 : 인터넷(www.chpungyh.co.kr.) 예약
 - ② 단 체(30명 이상) : 전화☎ 043 - 652 - 9090) 예약
- 객실 안내 : 4인실 (거실겸 방 + 욕실) / 6인실 (거실 + 방 2 + 욕실)
- 부대시설
 - ▮ 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이용료 별도 문의]
 - ▮ 바비큐장, 노래연습실, PC방, 농구장 등 [무료]
- 주변 관광지 ※ 사진출처 : 제천시청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청풍호 유람선>

<옥순봉 출렁다리>

● 청풍유스호스텔 전경

